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12.(일) 12:00
(지 면) 2026. 7. 13.(월) 조간

폭염 대비 우수사례 현장 예방정책에 적극 활용한다!

- 무더위쉼터, 취약계층 관리, 신기술 활용 등 분야별 우수사례집 배포
- 지방정부의 철저한 현장 대응 및 점검·관리 독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폭염 피해 저감 및 취약계층 관리 우수사례집’을 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맞춰 추진한 현장 중심 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 무더위쉼터 및 저감시설, ▲ 취약계층 안전관리 분야, ▲신기술 활용 분야, ▲민관협력 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 주민 친화형 무더위쉼터 운영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화형 무더위쉼터가 곳곳에 마련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이동식 무더위 대피공간인 ‘해피소’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독서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북카페형 스마트쉼터를 조성했으며, 전북 전주시는 사회복지관 등 유희공간을 활용한 ‘전주함께라면쉼터’를 개방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피소 전경(광화문 소재)



북카페형 스마트쉼터(대전 유성)



함께라면쉼터 전경(전주)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망 구축

폭염에 취약한 소외계층과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된다. 부산시는 쪽방촌 주민들이 야간에도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관내 사우나를 ‘희망목욕탕’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제주도는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덜어주는 ‘기후보험’을 도입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르신 안전 확인과 온열질환 예방 수칙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 과학기술 활용한 스마트 폭염 대응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폭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지방정부도 늘고 있다. 울산시와 경북은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해 농경지 등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안내 방송을 실시 중이다.

대구시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폭염예측모델’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부천시는 영상 송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 폭염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등 각 기관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폭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며, 지역별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전문관	김부생 (044-205-6369)

